

지역 소식통

정읍시 '들꽃마당',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선정

정읍시 민간정원 '들꽃마당'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선정은 전국 시도와 정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정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도 전국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로 선정된 45곳 중, 2차 국민 1만 3356명의 온라인 투표, 최종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들꽃마당이 포함된 최종 30곳이 선정됐다.

2021년 정읍 민간정원 1호이자 전라북도 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들꽃마당은 약 30년 동안 가꾸어 온 아기자기한 정원 풍경이 돋보인다. 특히 소나무와 향나무로 꾸며진 이색적인 풍경과 독창적인 가드닝으로 유명하다.

단순한 정원을 넘어 농촌교육 체험농장과 '정원에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어서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귀농인 농업창업 주택구입 대출 지원 신청

고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1월15일까지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서 귀농을 창업으로 할 목적으로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군민이다. 2023년 이후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자(금/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실행한 자로서 이차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 2023년 이후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으로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차 1.5% 중 1%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차 납부액 자료, 대출 실행 자료 등을 자청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학습, Come in-up' 주제... 청우 평생학습관 개관식도 열려

부안군은 지난 31일 부안군청 앞 광장에서 '평생학습, Come in-up'이라는 주제로 제6회 부안군 평생학습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새로운 평생학습의 공간인 청우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며 평생학습 도시로의 도약을 일렷다. 이번 축제는 무대발표, 체험 부스,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의 열정을 마음껏 펼쳤고, 미래교육 체험 부스에서는 홀로그램, AR 글라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축제의 재미를 더하였다.

특히 늦가이 문해 학습자들이 정성스럽게 그리고 쓴 시화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적 재능을 꽃피운 장애인 학습자들의 작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평생학습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같은 날 개관한 청우 평생학습관은 강의실, 오픈키친, 다목적실 등 6개의 교육 공간을 갖추고, 대학과 지자체 협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등을 운영하여 기관 네트워크 강



화 및 지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 평생학습관은 지역학습 커뮤니티의 중심 허브로서 다양한 학습자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지난 30일 전북연구원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정 주요 현안, 발전방안 모색

부안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30일 전북연구원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부안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연구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은 △부안군 고려청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대응 방안 등으로 전북연구원의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부안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안군과 전북연구원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부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부안군이 가진 풍부한 자연·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하는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었다"며, "전북연구원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이 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만나 현안사업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 노을대교 건립·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도민체전 등 협조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30일 지역의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찾았다. 심덕섭 군수는 김관영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립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방장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등 현안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창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립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조하며, 전북환경청의 전라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국내 최장 일직선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공유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고창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려한 명산인 방장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에 근거

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2025년 고창에서 개최되는 제62회 도민체전을 내실 있는 축제로 준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디지털정읍문화대전' 11월 1일 공식 오픈

정읍시와 한국화중앙연구원 공동으로 편찬한 '디지털정읍문화대전'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정읍문화대전은 정읍의 지리, 역사, 문화 등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백과사전으로,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지식백과, 유튜브, 카카오톡 등 포털 플랫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가 한국화중앙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한국화토문화전지대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5월부터 시작해 올해 9월에 완성됐다. 정읍의 방대한 자료를 담아낸 이 디지털 백과사전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등 9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1만 3500여 매 분량의 텍스트와 3112건의 사진, 10편의 동영상상을 수록해 풍성한

시각 자료와 함께 정읍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정읍의 동화농민혁명', '백제 중앙문화와 정읍 고사부리성' 등 역사적 사건과 장소는 물론 '정읍의 고전 시가와 태인판본', '조선의 3대 명주, 축령교' 등 정읍의 대표적 유산과 문화 콘텐츠를 담은 총 1324개의 표제어가 포함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1회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 개최

부안군은 지난 31일 국립새만금강역 박물관에서 '위기의 끝날'을 주제로 제1회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형술 국립새만금강역박물관장, 김종복 (사)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 최규갑 부안지회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양봉농가의 대화에서는 부안군 양봉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전국적인 꿀벌 집단 폐사,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 지원책 등을 골자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2부 비호텔(Be hotel) 조성 기념식에서는 비호텔의 기능을 소개하고 살기 좋은 별 서식 환경 마련을 위해 변산초등학교 학생들과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부안 일원에서는 벌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도에는 2020년 토종벌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꿀벌 격리 육종장을 조성했으며 새만금에는 올해 초 대규모 꿀벌 서식지가 마련됐다.

또 뛰어난 생태자원인 산, 들, 바다를 모두 보유한 부안군은 올해 초 ESG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안의 ESG 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비호텔 조성 사업이다.

비호텔은 감소하는 벌 개체수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양질의 서식 공간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에 조성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부안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양봉농가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양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